

# “수국·예술 어우러진 ‘감성 광주’로 오세요”

## 광주방문의해·6월 추천 명소

수국 명소·거리문화축제·이색 체험  
G-페스타부터 광주독립영화제까지  
숙박 할인도 최대 5만원 할인쿠폰

6월 광주는 초여름 수국이 활짝 핀 명소부터 문화 체험, 거리축제 등이 어우러져 감성적이고 활기찬 도시의 매력을 선사한다.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6월 시민과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광주 명소를 소개한다.

무등산 자락의 ‘동적골 수국동산’은 대표적인 도심 속 수국 명소로 최근 ‘맨발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을 통해 보행 환경을 개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수국, 산수국, 나무수국 등 총 15개 품종의 수국을 만날 수 있으며 계곡과 숲길 사이로 이어진 산책로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부담 없는 힐링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내 ‘회화나무 작은 숲’은 도심 한가운데 조성된 도시숲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 별관 앞을 지키던 회화나무의 후계목을 중심으로 조성된 이 공간은 초여름이면 수국이 어우러져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는 민방위 대피 시설



광주시가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6월 초여름 수국이 활짝 핀 명소부터 문화 체험, 거리 축제까지 시민과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명소를 추천했다. 사진 왼쪽부터 무등산 동적골 수국동산,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 <광주시 제공>



과 페컨테이너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다양한 색감의 수국과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산책길이 특징이다.

6월에는 도자기 아트 클래스, 장애인미술협회 전시, 실감미디어 기획전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광산구 ‘휴심정’은 광주시 제1호 민간정원으로 도천저수지 인근 약 9천100㎡ 규모의 공간에 28종의 수목과 25종의 초화류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입장료 없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광주 축제 통합브랜드 ‘G-페스타’ 봄 시즌 두 번째 테마인 ‘열정! 익사이팅!’은 청년 문화와 스트리트컬처가 어우러진 거리축제로 도심을 달

군다. ‘스트릿컬처 페스타’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ACC 예술극장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힙합·락킹·팝핑·오픈스타일 등 5개 장르의 스트리트댄스 배틀과 공연, 국내·외 댄서 2천152명이 참여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벵츠 플로피 3.0’은 6·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청년문화 축제다. 스트리트댄스·패션·디지털 아트 등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라이브 퍼포먼스와 브랜드 쇼룸, 전시, 워크숍, 플레이리스트 전시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충장라온페스타’는 13·14일 충장로 일대에서 스탠딩 팝, DJ 공연, 코스튬 카니발 등으로 도심

의 밤을 수놓는다. ‘제13회 광주독립영화제’는 26·29일 광주극장과 독립영화관(GIFT)에서 열리며 다양한 독립영화 상영과 감독과의 대화,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예술적 감성이 가득한 문화축제를 완성한다.

‘무등산 모노레일’은 초여름 녹음을 감상하며 산책을 누비는 대표 체험 코스로 리프트와 모노레일을 함께 즐길 수 있다. 6월 한 달 동안 광주 방문의 해 특별 할인으로 리프트+모노레일 왕복권 3천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몰리스크에이트장’은 최근 복고 열풍과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색 체험지다. 안전장비와 초보자 전용 구역이 마련돼 있어 처음 타보는 사람

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해 6월 방문객에게 단계별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차(6월28-30일) 최대 5만원 할인에 이어 2차(6월2일-7월17일) 최대 3만원 할인, 3차(6월5일-7월17일) 최대 5만원 할인 쿠폰이 11번가, 여기어때, 카카오톡 예약하기, G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이승규 신원력추진본부장은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축제와 체험, 혜택을 통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광주만의 매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문진기자

## 구례서 7일까지 ‘전남도 민간정원 페스타’

쌍산재·천개의 향나무숲 정원서 행사  
한복체험·정원소품만들기·음악회도

전남도가 오는 7일까지 구례에 있는 민간정원 3곳에서 ‘2025 전남도 민간정원 페스타’를 개최한다.

전남도는 올해를 정원 문화산업 세계화 원년으로 삼고 남도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5·6월 다양한 정원문화 행사를 개최, 정원 관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남도 케이(K)-가든 페스타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정원도 이에 동참해 남도정원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기 위해 지리산을 품은 쌍산재(제5호), 천개의 향나무숲 정원(제14호), 반야원(제21호)에서 페스타를 열고 3개 색감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지난달 30일 정원주 초대로 개최된 개막식에



는 김순호 구례군수,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해 취약계층, 다문화 가족, 어린이 등 300여명이 참석해 신록이 가득한 정원에서 축제를 펼쳤다.

<사진>

쌍산재, 천개의 향나무숲 정원, 반야원은 2024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이름을 올린 아름다운 정원이다.

쌍산재는 고택과 대나무 숲, 돌계단 등 전통

정원의 매력이 곳곳에 숨어 있다. 축제 기간 전통 한복 체험, 종가집에 전해오는 내림다과 체험, 우리가락 공연을 진행한다.

천개의 향나무숲 정원에선 50년생 은목서와 향나무에서 인생킷 활용하기, 정원소품 만들기, 플라마켓, 지역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한다.

반야원은 플라타너스 그늘 아래 차 한잔하며 연못 정원을 감상하고 시화·미술전시회, 정원음악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특산물 판매장도 운영한다.

축제 기간 3개 정원을 찾은 관광객은 정원주 안내로 정원에 얹힌 숨은 이야기를 들으며 탐방할 수 있다.

전남에는 전국 최초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과 담양 죽녹원 지방정원, 구례 지리산 지방정원이 조성돼 있다. 전통정원 3곳, 민간정원 30곳, 예쁜정원 48곳 등 84개소의 정원이 있어 정원의 보고장으로서 명성이 높다. /양시원기자

## 담양군 공금유용 방치 등 무더기 적발

도정기감사...위법·부당사항 60건

대행사업자의 공금 유용 방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미부과 등 담양군의 부적정 행정이 전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전남도 감사관실은 따르면 지난 2월12일부터 20일까지 담양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관계자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29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감사 결과, 담양군은 A사업체(이하 대행사업자)와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하고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사업자에 위탁했다.

담양군 조례와 용역 과역지시서 등에 수입금 등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의무가 명시돼 있음에도 담양군은 계약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수수료 징수 계좌를 점검하지 않았다.

또 대행사업자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6억3천324만원을 경조사·공채매입·비품구매 등 사업 운영 자금으로 유용한 뒤 다시 입금해 수수료를 군 금고에 납부하는 등 임의 사용했음에도 방치했다.

도 감사관실은 공금 유용 대행사업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담양군에게는 기관 경고와 함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담양군은 ‘광역교통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 시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승인 또는 인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해 함에도 2017년 사업 승인된 3개 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미부과한 채 방치해 부과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이 밖에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체육분야 보조금 지원·관리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양시원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